

# ‘상시 청문회법’ 힘겨루기

### 與 “남용시 행정부 마비...20대서 재논의 필요”

### 野 “협치의 시작”...靑, 거부권 행사 신중 기류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여소야대(與小野大)인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마다 주요 사안을 청문회로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 간에 기싸움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의 시행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몰미 움직임을 감지된다. 만 일 수시 청문회를 야당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면 박근혜정부를 흔들려는 카드로 활용하려 해도 여당으로서 이를 저지해내기 쉽지 않다. 모든 상임위에서 여당이 수적으로 열세일 수 있고 특히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는 더욱 여권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청와대 측은 22일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 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결 요구를 할 것이라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아직 신중한 기류다. 박 대통령도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장고(長考)’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시작하는 프랑스·아프리카 순방 이후에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일단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

면서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각에선 거부권 행사를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정재 원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회의 역할을 다 한다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심본 공감하나 수시 청문회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수시 청문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청문회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며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협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상시 청문회 반대는 대통령이 말해온 소통과 협치를 스스로 뒤엎은 것”이라며 “협치는 언술이 아니라 시대 정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시 청문

회) 행정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왕 야당을 협치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청문회 남용 우려에 대해 “만약 정부가 현안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굳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주와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는 만큼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작게 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가운데 자리는 정부”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제1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기념촬영에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성식·더불어민주당 변재일·김광림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2野 이번엔 PK 민심 잡기... 오늘 봉하마을 총집결

###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참석...광주 곳곳 29일까지 추모행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오는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7주기 추모식에 집결한다.

두 야당이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을 맞아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세 대결을 펼친 뒤 닷새 만에 경쟁무대를 부산·경남(PK) 지역으로 옮긴 것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야권의 상징적인 지도자인 노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서 민심잡기 다툼을 이어가는 것이다.

4·13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올라서고 ‘낙동강 벨트’에서 승리한 더민주는 이번 추모식을 계기로 PK 지역을 지난 1990년 ‘3당 합당’ 이전의 야당 우세지역으로 돌려놓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난 선거에서 PK 지역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한 국민의당은 지역 민심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끌어안기 위한 출발점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더민주의 ‘진노(진노무현) 패권주의’를 집중 공격해온 국민의당은 권력화된 진노 패권파와 순수한 노무현 지지층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김중진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한 더민주 지도부는 추모식에 참석하기 전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거제 대우조선 노조와 협력사, 삼성조선 협력사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최근 현안으로 부상한 조선·해운업의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원내 1당으로서 대책을 제시, 민생해결 경제정당의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추도식에 안철수·전정배 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20대 국회 당선인 26명이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추도식 당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어 지역경제 간담회를 열어 더민주의 거세행에 맞불을 놓는다.

광주에서도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린다. 22일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이하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소통의 기억·연결·보관’이라는 주제로 29일까지 광주 전역에서 추모행사가 진행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생점검회의 월 1회 정례화

여야 3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첫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향후 매달 1차례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첫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 김 의장은 첫 회의 뒤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월 1회를 원칙으로, 필요할 때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해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며 “다음 회의는 6월 둘째 주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더민주-국민의당 공조체제 본격화

### 가습기 피해·어버이연합 진상 규명...청문회 활용엔 온도차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공조 체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더민주가 수시 청문회를 정책 위주로 활용하겠다는 ‘발목잡기 정당’에 비해 국민의당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온도차’를 보였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어버이연합 의혹 사건을 주요 청문회 현안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들 현안에 대해 “여러 상임위에 걸친 상황이 많다”며 “상임위원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권력형 비리나 큰 현안에 관해선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수시 청문회) 남용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청와대)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죽이고자 했다”며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각 상임위의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특히 최근에 일어난 살균제 (사태)·어버이연합 (의혹)에 대해서 강한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법 개정으로 각 상임위에서 현안별로 청문회가 가능해졌다”며 상임위 청문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삼성 전장사업 유치·문화전당 활성화”

### 더민주 광주시당, 3개 특위 설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4·13 총선 공약 이행과 지역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하는 등 지역 민심잡기에 나섰다. 더민주 광주시당은 22일 한층 더 성숙한 시민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당헌·당규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 산하에 설치될 3개 특위는 광주 현안사업을 해결할 ▲삼성전자 전장사업 광주유치 특별위원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당에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자 전장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당에 건의하기 위한 ‘지방정치발전 특별위원회’(가칭) 등이다.

앞서 시당은 지난 21일 제11차 운영위원회와 제7차 상무위원회를 잇따라 열

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시당은 비록 4·13 총선에서 대패해 광주지역 국회의원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지만, 20대 국회 개원하면 관련 상임위원회의 더민주 소속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역의 현안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박해자 광주시당 위원장은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도 없다는 이유로 지역의 현안과제 앞에서 한 발 물러서 있게 된다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중앙당에 요청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광주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새누리 비대위-혁신위 일원화 가다

### 정진석 원내대표에 결정권

새누리당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혁신위원장 인선안 확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 보완책으로 비대위와 혁신위를 일원화하는 이른바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사대 수습을 위해 소집한 원내지도부·중진연석회에서 4선(20대 국회 기준) 이상 중진들은 대다수가 이런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복수의 참석자

들이 전했다. 비대위와 혁신위를 분리하지 않고 비대위에 당 혁신 추진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혁신비대위의 임기는 6개월 정도가 적당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중진들은 다만 의견 제시만 하고 임시 지도부 형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원내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따라 임시 지도부 인선을 둘러싼 내분이 봉합될지, 아니면 제2라운드 시작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년 노하우

##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 컨설팅 전문업체

### 경매 추천물건

- ★ 광주 동구 동명동 대지 700㎡ 건물 2005㎡ ▶ 감평가 19억 5천 8백만원  
최저가 13억 7천만원 1층수퍼 2~8층오피스텔 푸른길인근
- ★ 광주 남구 주월동 6층상가 대지 342㎡ 건물 1,259㎡  
▶ 감평가 7억 9천 6백만원 최저가 5억 5천 8백만원 초등학교와 학원건물
- ★ 전남 나주시 경현동 한수저수지 금성산입구 3층 연수원건물대지 1488㎡ 건물 2075㎡ ▶ 감평가 30억 6천 5백 최저가 7억 3백
-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신북농공단지 현 오리가공공장 대지 3,197㎡ 건물 2349㎡ ▶ 감평가 4억 최저가 6억 2천 7백만원
- ★ 전남 화순군 동면 서성리 저수지 앞 전원주택단지 토지 554㎡  
▶ 감평가 1억 1천 최저가 6천 2백만원 지대높음 전망좋은
- ★ 광주 북구 대촌동 첨단산업단지내 대지 3293㎡ 건물 1495㎡  
▶ 감평가 17억 5천만원 최저가 12억 2천 5백만원 단층공장
- ★ 광주 북구 매곡동 4층상가 대지 739㎡ 건물 1,261㎡  
▶ 감평가 12억 1천 6백 최저가 9억 7천 3백만원 현학원 운영중
- ★ 광주 북구 신안동 1층상가 3개 2층 사무실 대지 210㎡ 건물 152㎡  
▶ 감평가 1억 8천 6백만원 최저가 1억 3천만원 도로변

### 공매 추천물건

-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계획관리지역 10,706㎡ 무안공항인근 펜션 부지 적합 바다 조망 ▶ 9억 1천 5백만원 최저가 9억 1천 5백만원
- ★ 광산구 오산동 진곡산단내 대지 319㎡ ▶ 감평가 1억 9천 5백만원  
최저가 1억 9천 5백만원 단독주택부지 기반시설완료
- ★ 광주 서구 금호동 시영아파트 뒤편 창고 대지 350㎡ 건물 177㎡  
▶ 감평가 2억 4천만원 최저가 2억 4천만원

### 수익형 일반매매

- ★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부근 근린시설용지 기업은행뒤편 대지 479㎡ ▶ 매매 5억 8천 (조정가)
- ★ 광주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95㎡ 웰빙건강랜드부근 ▶ 매매 2억 2천만 (조정가) 현 주차장이용
- ★ 광주 서구 화정동 6층 모텔유흥 대지 416㎡ 건물 2,000㎡ 터미널 뒤편 객실 20개 상가 4개 고수익물 ▶ 매매 27억 원 (13억 포함)
- ★ 광주 광산구 우산동 80미터 도로변 3층무인텔 대지 2,372㎡ 건물 2,760㎡ 객실 36개 ▶ 매매 58억 (28억 포함), 수익성 월 8천 정도

## 20년경력 010-6211-4585 조여사 / 직원모집 초보환영 / 공인중개사 010-6838-6008 강천구